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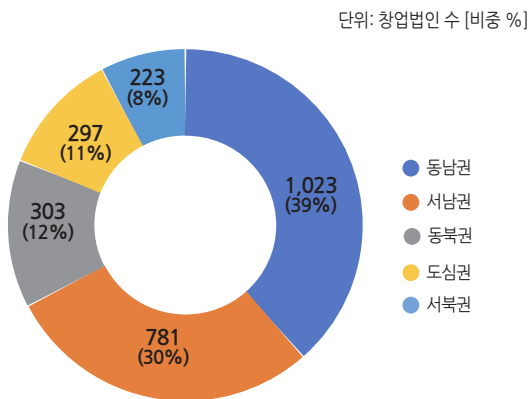
지역별 창업 동향

1) 5대 권역별

I 5대 권역별 창업현황

- 권역별 법인 창업은 동남권이 1,023개로 가장 많고, 그 다음은 서남권 781개, 동북권 303개, 도심권 297개, 서북권 223개 순으로 조사

[그림 4] 2018년 12월 권역별 창업법인 수(비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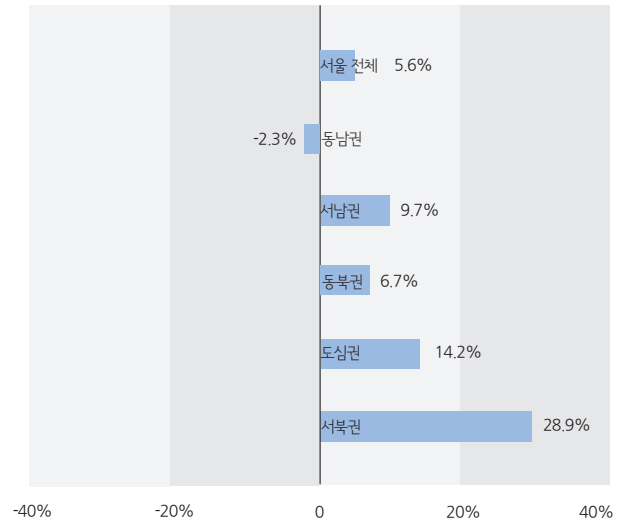


I 권역별 증감률

- 권역별로는 서북권의 법인 창업이 전년 동월에 비해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도심권, 서남권, 동북권도 증가했으나 동남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서울 법인 창업에서 창업 건수가 가장 작은 서북권(28.9%)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도심권(14.2%)도 큰 증가세를 보임. 그 외 서남권(9.7%)과 동북권(6.7%)의 창업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
 - 서북권은 바이오메디컬·녹색디자인 및 패션, 도심제조업, 도소매업 등의 창업이 매우 큰 증가율을 보임
 - 도심권, 서남권, 동북권은 공통적으로 바이오메디컬·녹색디자인 및 패션 산업이 급증한 가운데, 도심권은 금융업이, 동북권은 관광·MICE 산업이, 서남권은 도심제조업이 큰 폭으로 증가
- 반면 동남권(-2.3%)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감소
 - 동남권 창업은 2018년 10월 추석효과로 인해 반짝 급등한 것을 제외하고는 6월부터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함
 - 동남권은 관광·MICE, IT융합 산업 등은 급증했으나 바이

오메디컬·녹색디자인 및 패션 산업을 비롯한 도소매업,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이 큰 폭으로 감소

[표 4] 2018년 12월 권역별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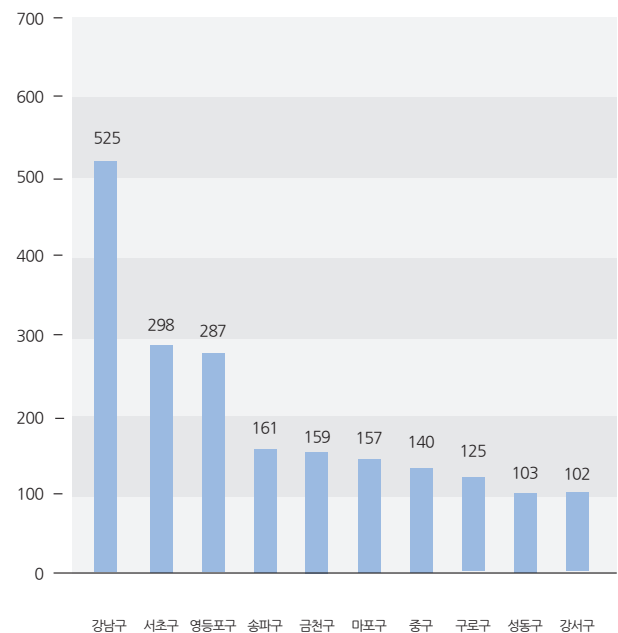


2) 자치구별

I 자치구별 창업현황

- 자치구별 법인 창업은 강남구가 525개로 가장 많고, 그 외 서초구 298개, 영등포구 287개, 송파구 161개, 금천구 159개, 마포구 157개, 중구 140개, 구로구 125개 순

[표 5] 2018년 12월 창업법인 수 상위 10위 자치구





- 금융업은 영등포구에서, 그 외의 산업들은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창업
- 영등포구와 종로구는 금융업 창업 건수가 가장 많고 중구는 도소매업 다음으로 금융업 창업이 가장 많음
- 구로구, 금천구, 마포구, 강서구, 관악구는 도소매업 다음으로 IT융합 창업이 가장 많음
-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성동구, 광진구는 도소매업 다음으로 비즈니스서비스업 창업이 가장 많음
- 용산구는 도소매업 다음으로 콘텐츠 창업이 활발

I 자치구별 증감률

- 은평구(85.7%), 강북구(46.7%), 금천구(44.5%) 등은 법인 창업이 급증한 반면, 강동구(-33.9%), 동대문구(-20.0%), 관악구(-18.2%) 등은 감소
- 창업법인 수 상위 10개 자치구 중에서는 금천구(44.5%), 마포구(26.6%), 강서구(24.4%), 성동구(24.1%) 등은 크게 증가한 반면 강남구(-11.3%), 구로구(-4.6%), 영등포구(-2.7%)는 감소

[표 6] 2018년 12월 창업법인 수 상위 10위
자치구별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

